

제16권 1호 신년 특집호

2026. 1. 5~2026. 1. 18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논단

금융산업의 도전과 기회

이슈분석

국내경제, 회복이 기대되나 산재한 불안요인
2026년 금융산업: 업권간 차별화와 리스크 관리
2026년 산업, 'D.E.W.E.I.G.H.T' 기반 체질 개선 본격화
2026년,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 가속화
2026년 세계경제: AI 모멘텀 속 국가별 성장 차별화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김예미(hmikim)
연구원	유승원(youth1)

논단

소장	정희수(heesoo_jung)
----	------------------

이슈분석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위원	김예미(hmikim)
연구위원	안혜영(mith5)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연구위원	강미정(ashleykang)

금융지표

연구원	민현하(hyunhamin)
-----	----------------

제16권 1호 신년 특집호

2026. 1. 5~2025. 1. 18

하나로 연결된
모두의 금융.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01 **논단**

금융산업의 도전과 기회

04 **이슈분석**

국내경제, 회복이 기대되나 산재한 불안요인
2026년 금융산업: 업권간 차별화와 리스크 관리
2026년 산업, 'D.E.W.E.I.G.H.T' 기반 체질 개선 본격화
2026년,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 가속화
2026년 세계경제: AI 모멘텀 속 국가별 성장 차별화

14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금융산업의 도전과 기회*

정 희 수 소장

올해는 정부가 그 동안 준비해 온 새로운 정책들이 실행되고 AI 기술이 금융권에도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등 중요한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회사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사회적 가치를 향상하는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또한 사디지털자산 시대를 맞이하여 AI의 업무 침투율을 높이고 디지털자산 법제화와 함께 블록체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에 대비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시장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

:: 2026년, 금융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는 시점

2025년은 대내외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한 해였다.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기도 했다. 미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반면 국내 경제는 소비회복 지연, 건설경기 악화 등으로 1%의 성장률에 머무르는 가운데 주가가 급등하면서도 금리 및 환율이 급변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컸다.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의 실적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6월 출범한 신정부는 다양한 국정과제와 함께 금융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금융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만한 정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지난해 대내외 어려운 금융환경에서도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2026년에는 정부가 그 동안 준비해 온 새로운 정책이 실행되는 시기인 만큼 금융권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정책의 중심 화두인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금융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면서 사전 예방적인 제도정비가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디지털자산의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금융과 비금융 간의 경쟁 또는 협력관계가 심화될 것이다. 한편 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의 AI 활용도에도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새로운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중요한 시기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새로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역량 강화

생산적 금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기대감 또한 높다. 특히 국민성장펀드, 국민참여형 펀드 등 다양한 정책금융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모험자본의 활성화를 유도해 초기 단계의 혁신 기업에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협력을 통해 국가차원의 산업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혁신기업이나 벤처기업으로 자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회수시장을 활성화해서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회수-재투자”의 건전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생산적 금융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자금이 잘 투입될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포용적 금융을 통해
 사회적 가치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


한편, 포용적 금융도 생산적 금융과 함께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이다. 청년 또는 금융 소외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중금리 대출을 확대해 금리단층을 완화하는 등 함께 성장하는 정책이 강화될 것이다. 체감경기의 회복속도가 느리고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문제를 해소하고 취약 계층의 재기를 위한 금융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금융권의 공공성에 앞서 사회적 가치를 향상시키려는 금융권의 자발적인 참여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다. 그 동안 금융권에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 왔지만, 향후 지원 대상 범위 또는 지원 방식 등을 다양화함으로써 포용적 금융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통해 블록체인 중심의
 결제시스템으로 전환

올해 법제화가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조성은 금융권의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 금융질서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뀔 것이다. 그 동안 은행카드 결제망 중심으로 형성된 지급결제시장이 블록체인 결제망 중심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결제시스템 간 경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기존 금융과 대체재 또는 보완재 역할을 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한편 IT 기술 발전과 관련한 올해 금융권의 화두는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경쟁력 확보에 있다. 챗GPT 출시 이후 금융권에서도 디지털전환(DX)보다 이를 포괄하는 AI전환(AX)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러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AI의 업무 침투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올해는 실질적으로 다양한 업무에서 AI의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업무 침투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내규 검색,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대안신용평가모형 등의 업무 효율성은 더욱 고도화되고, 이상거래 탐지 및 의심거래 보고, 자금세탁 방지(AML), 고객확인 의무(KYC) 등으로 AI 침투율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향후 금융회사에서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축적과 함께 데이터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중요해지고, 특히 보안리스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난해 보안사고가 다수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금융권에서는 정보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보안리스크로 인해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이 위축되지 않는 선에서 “개인정보 보안과 활용” 두 관점에서 균형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 변화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빠르게 하락하는 국내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부채중심의 성장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로의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이라는 정책수단은 금융의 역할 변화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민간 금융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역량을 확보해야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이 작아짐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생산적 금융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한편 AI 기술과 디지털자산은 금융권에 있어 새로운 도전이자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새로운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빅테크 등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시장 참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융산업이 이들과 단순한 경쟁관계를 형성하기보다 제휴·협력 관계를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편 새로운 시장 형성과 참여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의 저하 문제도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 보완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 올해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전향적인 환경 및 제도 변화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AI 전환을 통한 업무 고도화, 데이터 축적 외에 보안 리스크 관리도 중요

금융권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해야

국내경제, 회복이 기대되나 산재한 불안요인

김영준 연구위원

올해 국내경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민간소비 회복 등 내수개선과 반도체 특수 지속 등에 힘입은 성장세가 기대된다. 특히 소비심리 개선과 SOC 예산 증액 등으로 인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트럼프發 불확실성과 수익 모델이 불분명하다는 'AI 버블론' 등의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고환율의 '뉴노멀' 가능성, 통화정책 불확실성, IT와 비IT 산업간 양극화 등의 불안요인이 회복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6년 국내경제, 정부의 내수부양과 반도체 특수 등에 힘입은 성장세

- 올해 국내경제는 소비 및 투자심리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더해지면서 내수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상황
 - 정부가 '26년 예산을 728조원으로 확대 편성하면서 내수 부양에 방점을 찍을 전망
- 국제유가 하락 및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약화와 가계 실질 구매력 회복 역시 내수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OPEC+ 증산 및 글로벌 수요 약화 등으로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이 지속될 전망
- AI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급증으로 반도체 경기 호조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반도체 설비투자 및 생산능력이 HBM에 집중되면서 범용 제품의 공급 잠식으로 인한 메모리 전반의 타이트한 공급이 지속될 소지


■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과 물가 안정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빠른 고령화·가계부채 누증 등 구조적 요인으로 증가폭은 제한적
- 건설투자는 수도권 주택 착공 확대(9.7 대책)와 SOC 예산 증액,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반도체 등 IT 제조업의 꾸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비IT 부문의 과잉생산 부담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수출은 반도체 부문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교역 둔화와 美 관세의 영향, 대미 직접투자(FDI) 확대 등으로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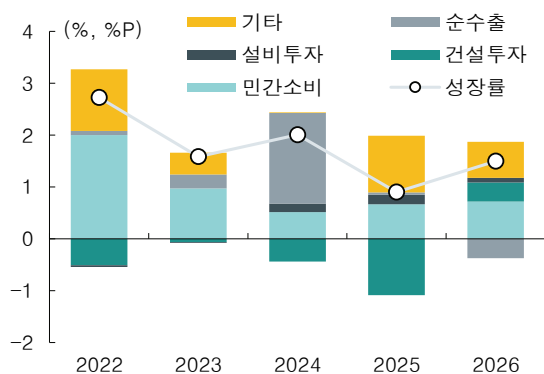
■ 트럼프로 인한 혼돈과 'AI 버블론' 등의 대외 불확실성 여전

- 2025년 트럼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부과와 파괴적인 이민 정책, 불확실한 외교 행보로 기존의 국제질서를 흔들고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
 - 다만 트럼프가 TACO(Trump Always Chicken Out: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는 신조어) 행보를 보이면서 금융시장 혼란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 2026년에도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성 판단 여부와 超비둘기파 연준 의장 지명에 따른 연준 독립성 우려 등으로 트럼프發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
 - 특히 올해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
- 주요국 정부 및 테크기업의 AI 주도권 선점 경쟁에 따른 전력 인프라 및 데이터센터 증설 필요성 등으로 관련 투자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지만, 막대한 투자비용 대비 수익 모델이 불분명하다는 'AI 버블(Bubble)론'도 존재

■ 고환율 장기화, 통화정책 불확실성, 산업별 양극화 등은 불안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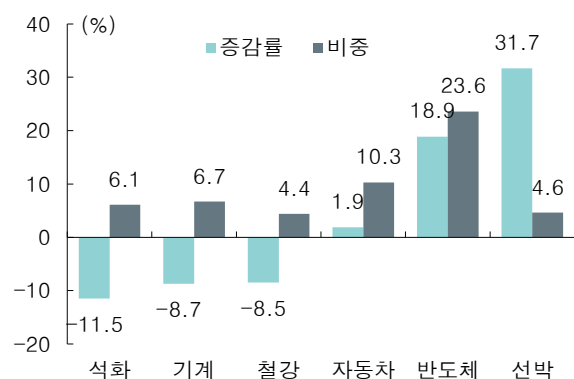
- 거주자 해외투자 확대 등 달러화 수급 변화와 한·미 성장률 역전 등으로 1,400원대 고환율이 장기화되면서 수입물가 압력과 기업·소비자 심리에 악영향 우려
 - 해외투자 확대와 달러화 보유 선호로 '경상수지 흑자→ 원화 강세'의 흐름이 약화
- 경기 모멘텀 강화를 위한 금리인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관리, 한미 정책금리 역전,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이슈로 한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
 - 한은이 통화정책 여력을 남긴 채 정책금리 인하 사이클을 마무리할 가능성
- AI 투자붐과 MASGA 등에 힘입은 반도체 및 조선업 호황과는 달리, 석화, 철강, 건설 등 주력산업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업종별 경기 격차가 확대될 듯
 - 불황에 빠진 석화와 철강은 구조조정·설비효율화를 통한 高부가 전환에 착수 

■ GDP 성장률 및 항목별 기여도



주 : 2025년은 추정치, 2026년은 전망치
자료 : 한국은행, 하나금융연구소

■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 및 비중 비교



주 : 2025년 1.1~11.25일 기준
자료 : 산업통상부

2026년 금융산업: 업권간 차별화와 리스크 관리

김혜미 연구위원

2026년 금융산업은 유동성이 특정 섹터로만 쏠리는 선별적 집중 현상이 심화되며, 업권별 실적 명암이 갈리는 차별화 국면에 진입할 전망이다.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 가속화로 증권·운용업은 호조가 예상되는 반면 규제강화와 구조적 부실 부담을 안은 은행 및 제2금융권은 성장 정체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무리한 외형 경쟁보다는 부실자산의 선제적 정리와 금융정책을 활용한 포트폴리오 재편 등 자본효율성 중심의 내실경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2026년 금융산업은 풍부한 유동성 효과가 지속되나 유동성의 선별적 집중 현상이 심화

- 시장 내 풍부한 유동성은 2026년에도 여전히 유효하나 수익성 및 성장성이 검증된 섹터로만 몰리는 ‘유동성의 선별적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전망
 - 특히 대출규제로 인해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 (Money Move) 현상이 가속화
- 2026년은 단순 외형 확대 경쟁은 종료되고 한정된 자본을 고효율 섹터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해지며, 업권별·기업별 펀더멘탈에 따라 차별화되는 국면에 진입


■ 유동성 효과로 증권 및 자산운용은 호조를 보이는 등 업권간 차별화가 극대화되는 시기

- 높은 기대 수익률이 예상되는 투자자산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안착됨에 따라 증권업·자산운용업은 실적 호조를 기대
- 은행업과 보험업은 성장 임계점에 도달하여 중립 또는 정체 국면이 예상되고 교육세·과징금 등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 우려
 - 은행업은 가산금리 축소, 금리 리프라이싱 효과 등 순이자마진 축소 압력 지속과 당국의 강력한 대출 총량 규제로 인해 이자이익 성장은 제한
 - 보험업은 기포화된 시장의 제로섬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IFRS17 관련 회계적 불확실성이 상존하여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움
- 여전업은 조달환경이 개선되고 소비 심리 회복으로 신용카드 취급액이 증가하나 가계대출 억제 정책으로 고수익자산(카드론 등) 위축이 불가피하여 제한적 회복세
- 저축은행은 여전히 높은 조달비용 부담과 저신용 차주의 연체율 상승이 구조적으로 맞물리면서 건전성 악화와 수익성 훼손이라는 이중고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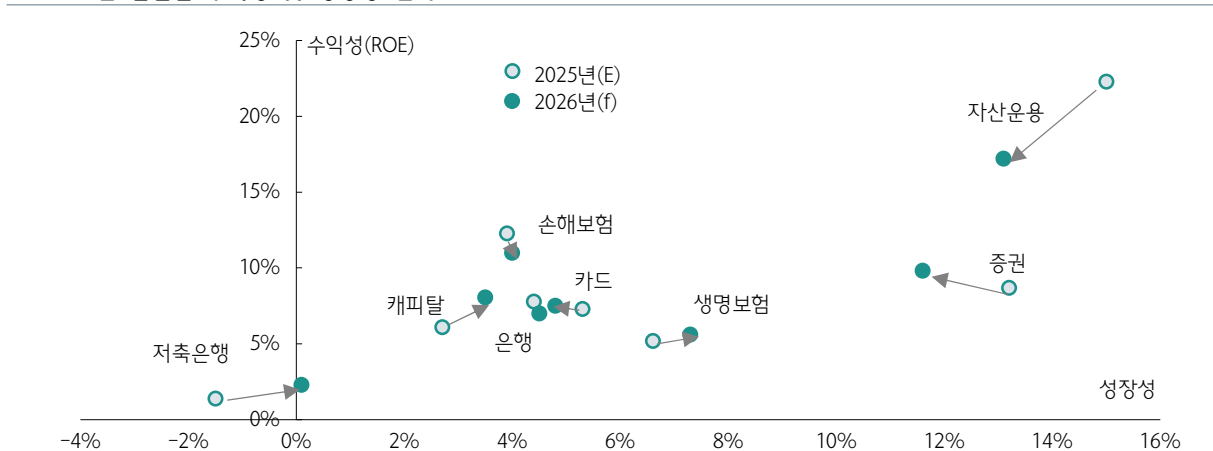
■ 생산적 금융정책은 기회로 작용하나, 자본규제 준수 및 채무구조도 안착 등의 과제 직면

- 생산적 금융정책은 금융사에게 단순한 담보대출을 넘어 벤처·혁신기업 대출·모험 자본 투자 확대 등 고부가가치 기업금융을 강화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
- 그러나 신용위험 상승으로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자본 확충 요구까지 더해져 보통주자본비율(CET1) 방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
- 생성형 AI(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고도화된 금융사기가 급증하면서 비대면 채널의 신뢰도가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보안·컴플라이언스 비용은 대폭 증가
-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에게 관리 책임을 묻는 채무구조도가 본격 도입되면서 단순한 규정 준수를 넘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요구

■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펀더멘탈을 강화하고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재편 필요

- 무리한 외형 확장보다 자본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내실 경영을 추진, 특히 선제적으로 부실자산을 정리하여 자산건전성을 개선하여 펀더멘탈을 강화
 - 정교한 RWA관리로 자본비율 관리 및 보수적 충당금 적립을 통해 자본비율 방어 및 주주환원 여력을 확보할 필요
- 정부정책에 발맞춰 우량 벤처·기술기업 등 CIB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단순 대출을 넘어 지분투자 병행을 통해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투자 차익도 확보
- 금융 그룹 내 성장이 정체된 은행 부문의 의존도를 낮추고 증권, 자산운용 등 비은행 부문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 2026년 업권별 수익성 및 성장성 변화



주 : 성장성(증가율) 기준 - 은행(원화대출금), 증권(순영업수익), 자산운용(수탁고), 생명보험(수입보험료), 손해보험(원수보험료), 신용카드(이용액), 캐피탈(총자산), 상호저축은행(총자산)

자료 : 금융감독원, 하나금융연구소

2026년 산업, 'D.E.W.E.I.G.H.T' 기반 체질 개선 본격화

안혜영 연구위원

2026년은 전통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 및 저성장 탈피를 위한 산업 구조개편의 원년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과 생산적 금융 지원을 통해 미래 산업의 신성장 동력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는 과감한 사업 재편, AI 및 로봇 기반 고용혁신, 자산 경량화 등 'D.E.W.E.I.G.H.T'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산업 구조변화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산업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기업의 혁신, 금융사의 자금지원 간 유기적 협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 반도체 등 일부 업종 주도의 성장의 착시 속 산업 전반의 체력은 크게 저하

- 2026년 금리, 원자재 등 매크로 여건은 국내 산업에 우호적이나 통상 환경 악화, 그린장벽 등 대외 리스크 확대와 주력 산업 경쟁력 저하로 부진이 지속될 전망
- 2026년 국내 산업 합산 실적은 반도체와 조선업 고성장에 힘입어 표면적으로는 실적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업종 간 온도차는 더욱 확대
 - 산업 합산 매출증가율('25년 0.3% → '26년 2.4%), 영업이익률('25년 5.8% → '26년 6.8%)
- 국내 전통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건설 등은 구조적 저성장과 생산성 둔화에 따른 경쟁력 저하로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산업 전반의 체력이 저하
- 여기에 미국발 통상 갈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주요국 제조업 자강 정책 추진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


■ 정부는 구조적 저성장 극복 위해 미래 전략 산업 육성과 생산적 금융 지원을 확대

- 정부도 국내 주력 산업 경쟁력 하락과 저성장 고착화에 대응하기 위해 단순히 양적 팽창이 아닌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 중심으로 성장 엔진을 교체하기 위한 산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
- 이를 위해 AI, 바이오, 방산, 에너지 등 핵심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설정하고 해당 산업 및 관련 생태계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의 예산을 대폭 확대
- 특히 150조원 규모(2026년 30조원)의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 금융 지원을 통해 미래전략산업 및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하여 국내 성장 동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
 - 국민성장펀드 1차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AI, 반도체, 재생에너지 등 7곳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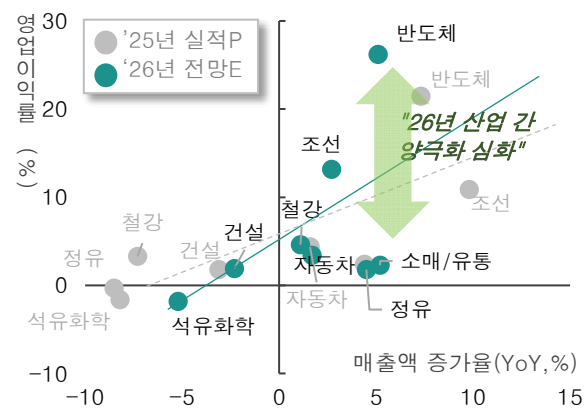
■ 2026년 국내 산업계에서도 'D.E.W.E.I.G.H.T' 기반의 리밸런싱이 가속화될 전망

- 2026년 국내 산업계에서도 구조적 저성장 극복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개별 기업들의 강력한 체질 개선 의지에 따라 'D.E.W.E.I.G.H.T' 트렌드 중심의 산업 대전환이 본격 전개될 전망
-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산업 내 범용 부문의 과감한 구조조정, K소비재 및 고부가 품목으로의 전환 및 그린 전환을 통해 산업 전반의 체질개선에 집중
- 고용 측면에서는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여 AI, 로봇 기반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전문 기술 인력 중심으로 인적 자원을 고도화 하는 노력이 병행
- 투자 측면에서는 지식서비스 중심의 자산경량화와 공급망 블록화 및 무역 장벽 극복을 위한 해외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국내 산업의 위기 극복과 체질개선을 위해 정부, 기업, 금융 간 유기적 협력이 중요

- 2026년 국내 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 기업의 혁신 노력, 금융사의 자금지원 사이의 유기적 협력이 요구
- 기업은 과감한 구조개편과 동시에 미래 성장 산업으로의 자원을 재배분하여 산업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본원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필요
- 금융사는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여신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동시에 미래 전략 산업/기술 및 유망 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 및 금융지원을 확대
- 정부는 기업이 혁신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제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과 신용/기술 보증 강화 등을 통해 금융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필요 

■ 주요 산업별 2025년 실적과 2026년 전망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 2026년 국내 산업 8대 트렌드: D.E.W.E.I.G.H.T

2026년 국내 산업 8대 트렌드			의미
산업 구조	D	Downsizing	구조조정
	E	Export Rebalancing	수출 리밸런싱
	W	Wave of Green Transition	녹색 전환
고용	E	Employment Shift	고용구조 전환
	I	Increasing Employees' Rights	노동자의 권리 강화
투자	G	Globalization Fragmentation	공급망 블록화
	H	Heavy-Light shift	자산의 경량화
	T	Transfer Investment	투자 이전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2026년,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 가속화

안 성 학 연구위원

2026년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국내외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퇴직연금, ISA 등 주요 자산관리 채널에 있어 증권사 이용 빈도가 더욱 확대되고 발행어음과 IMA 인가 증권사 증가에 따른 관련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자본시장으로의 자금흐름이 촉진될 것이다. 다만 2026년 중 유동성 증가세가 둔화되고 주가 고점 논란이 부각될 경우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주가상승률이 높았던 국내 증시의 높은 변동 가능성에 대한 유의가 필요하다.

■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과 국내외 유동성 확대를 바탕으로 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 확대가 기대

-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가계대출 규제를 포함한 적극적인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시장 참여가 확대될 전망
 - 국내 투자자예탁금(조원) : 67.5('21) → 46.4('22) → 52.7('23) → 54.2('24) → 87.4('25)
- 특히 2025년 국내 증시는 신정부 출범과 함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 등 주가부양에 대한 기대로 큰 폭의 주가상승 시현
 - 2025년 연간 주요국 증시 상승률 : 코스피지수 75.6%, Nikkei225지수 26.2%, 대만가권지수 25.7%, 유로스톡스50지수 18.3%, S&P500지수 16.4%
- 또한 견조한 미국 경제 성장과 높은 주가 상승률을 바탕으로 미국 증시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되면서 국내투자자들의 참여가 더욱 증가할 전망
 - 美 주식 순매수(십억달러) : 20.8('21) → 12.1('22) → -2.8('23) → 10.5('24) → 32.5('25)


■ 특히 ETF는 국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투자 수단 및 자산관리 목적으로 수요가 확대되면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

- ETF는 글로벌 및 테마형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및 원자재 등으로 투자 대상의 다양성과 거래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을 촉진할 전망
 - ETF 순자산 추이(조원) : 73.9('21) → 78.5('22) → 121.0('23) → 173.5('24) → 297.3('25)
- 또한 파킹 등 일시적 자금 관리 및 레버리지·인버스 등 개인투자자들의 다양한 투자목적에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타 업권의 운용수단으로 ETF의 활용도가 확대
 - 특히 신탁, 퇴직연금, 개인연금, ISA 등 다양한 자산관리 부문에서 ETF 활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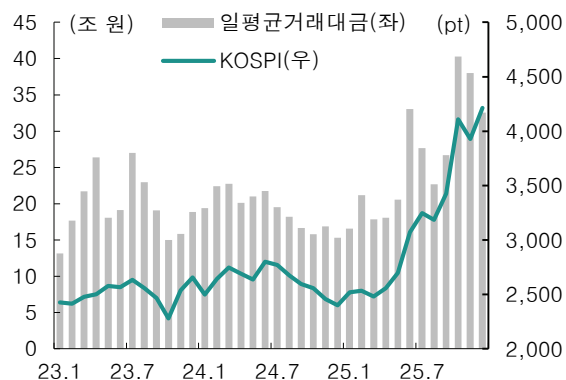
■ 자산관리상품 및 채널 이용에 있어 증권 부문으로 자금이동 사례가 더욱 확대될 전망

- 예금 등 은행 고유 상품보다 높은 기대수익률을 바탕으로 한 증권 및 자산운용 등 자본시장 관련 상품으로의 자금이동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금리상승으로 정기예금으로 자금이동이 일부 증가할 수 있으나 높은 기대수익률이 예상되는 주식 및 ETF 등 증시 관련 상품으로 자금이동이 더욱 확대될 전망
 - 한편 발행어음 및 IMA 인가 증권사 확대, ELS 판매 규제완화 예정 등으로 파킹 및 고수익 수요에 부합하는 해당 증권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
- 퇴직연금에서 DC, IRP 비중이 증가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등 적극적인 운용이 확대되고 투자중개형 ISA 등 증권 채널을 통한 자산관리 수요도 증가
 - 퇴직연금 중 DC·IRP 비중(%) : 42.5('22) → 46.1('23) → 49.8('24) → 53.9('25.9)
 - ISA 중 투자중개형 비중(%) : 34.9('22) → 40.1('23) → 55.7('24) → 64.3('25.11)

■ 국내외 증시로의 자금이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유동성 증가세 둔화, 주가 고점 논란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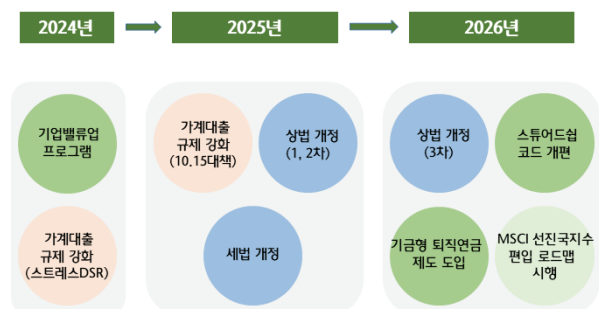
- 글로벌 국가들의 확장적 재정정책,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른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이 지속될 전망
 - 국내도 생산적 금융 확대, 상법·세법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등에 힘입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이 확대
- 다만 2026년 중 금리인하 사이클 종료로 시장금리가 상승 전환될 경우 글로벌 유동성 증가세 둔화, 주가 고점 논란 부각에 따른 증시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
 - 특히 국내 증시가 2025년 다른 국가 증시 대비 매우 큰 폭의 주가상승을 기록한 점을 고려할 때 변동 폭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KOSPI 지수와 일평균거래대금 추이



자료 : 한국거래소

■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자료 : 금융위원회, 하나금융연구소 정리

2026년 세계경제: AI 모멘텀 속 국가별 성장 차별화

강 미 정 연구위원

2026년 세계경제는 교역 둔화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 확대 및 물가상승 압력 완화 등으로 2025년과 비슷한 3%대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미국 경제와 여타 국가들 간의 성장을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리스크 요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AI의 기술 격차가 국가 간의 성장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는 산업구조 차이 등으로 상대적으로 선진국 경제에 더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2026년 세계경제는 재정지출 확대 및 물가 안정 등에 힘입어 3%대 성장세 유지

- 관세 영향으로 교역 증가율이 큰 폭 둔화되나, 경기부양 기조 강화 및 유가 안정에 따른 점진적인 물가 하락 등으로 2025년(3.2%,yoy)과 비슷한 성장 전망(3.1%)
- 미국 경제의 상대적인 우위가 지속되는 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신흥국들의 경우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고관세 여파로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
 - 주요 신흥국은 정부 주도의 투자를 확대하는 등 내수 부양을 위한 정책에 집중


■ AI 투자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이 기대되는 미국과 여타국 간 성장률 격차는 확대

- (미국) 관세발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 및 개인소비 부진 등을 강력한 AI 투자가 만회하면서 주요국 중 유일하게 전년대비 성장률이 반등
 - 고용시장 둔화,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등을 반영해 추가 금리 인하 기조 유지
 - 첨단기술 분야의 혁신 및 투자에 힘입어 노동생산성이 레벨업('10~'19년 평균 0.29% 증가 → '20년 이후 0.46%)되고, 성장 잠재력이 제고
- (유로존) 독일을 중심으로 방위 및 인프라 투자 등이 확대되면서 유로존의 전반적인 수요가 회복되고, 완만한 성장 흐름이 지속될 전망
 - 다만 여타 회원국의 재정지출 확대 여력이 제한되는 가운데 러시아와 긴장 장기화, 재정건전성 악화, 제조업 경쟁력 약화, 인구 고령화 등의 구조적 리스크 존재
- (중국) 소비 및 인프라 투자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이 강화될 전망이나 부동산 부진 장기화 및 수출 모멘텀 약화 등으로 성장세는 4%대로 둔화
 - 정책 당국의 과잉생산 축소를 위한 공급개혁 추진은 여전히 투자 위주의 성장 구조 하에 단기적으로 투자 위축 → 고용 약화 → 소비 회복 지연을 초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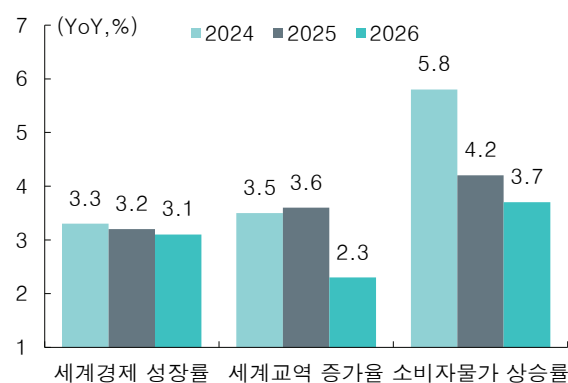
■ 보호무역주의 확산 속 미중 갈등 지속, 주요국들의 재정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유의

- 보호무역주의 및 정책 불확실성, 미중 패권경쟁 고착화 등은 공급망 분절에 따른 비효율성을 증대시키며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선진국을 포함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및 첨단산업 투자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이어지면서 정부부채 급증에 따른 재정건전성 우려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
 -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 압력 확대는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
- 한편, 미국, EU, 중국 등에서의 고용 부진 심화 속 AI 발전은 저숙련·중간 숙련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며 단기적으로 전 세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

■ 한편 AI가 성장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이는 선진국 경제에 더 높게 기여할 가능성

- 경제 패러다임이 정책과 에너지, 기술 인프라 등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AI 기술 격차는 국가 간의 성장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
 - 미국과 중국은 AI와 반도체, 바이오,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강구도 형성
- 서비스업 비중과 전문직·관리직 비중이 높은 미국에서의 AI 확산은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뚜렷해 경제 성장 효과가 클 것으로 추정
 - 선진국은 AI 고노출 직무(약 60%) 중 상당 부분이 전문직·관리직으로, AI가 인간 노동을 대체하기보다 생산성을 보완(complementarity)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여지¹⁾
- 반면 신흥국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제조업과 단순 서비스 노동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 하에 AI로 인한 ‘대체’가 경제 효과를 제한할 가능성
 - 중국은 ‘35년까지 전면적인 스마트경제 실현을 목표로 하는 ‘인공지능 플러스’ 정책을 발표하고, AI 상용화를 통해 생산성 개선 및 소비수요를 확대할 계획 

■ 글로벌 주요 거시 지표 전망



자료 : IMF WEO('25.10)

■ 주요국 GDP 성장률 전망

(%)	2024	2025P	2026E
세계	3.3	3.2	3.1
선진국	1.8	1.6	1.6
미국	2.8	2.0	2.1
유로존	0.9	1.2	1.1
신흥국	4.3	4.2	4.0
아시아 신흥국	5.3	5.2	4.7
중국	5.0	4.8	4.2
인도	6.5	6.6	6.2
ASEAN5	4.6	4.2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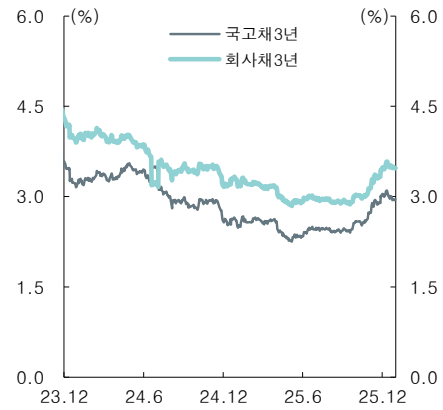
자료 : IMF WEO('25.10)

[1] “Gen-AI: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Work, IMF”, 2024.1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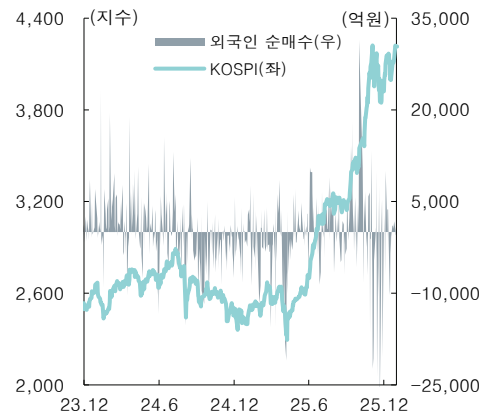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24년말	3.33	3.39	3.01	3.28	2.60	2.76
12월말	2.63	2.81	2.79	3.48	2.95	3.24
12월 24일	2.54	2.86	2.80	3.48	2.94	3.21
12월 26일	2.55	2.87	2.80	3.49	2.96	3.24
12월 29일	2.52	2.87	2.79	3.47	2.94	3.23
12월 30일	2.54	2.87	2.79	3.48	2.95	3.24
12월 31일	2.63	2.81	2.79	3.48	2.95	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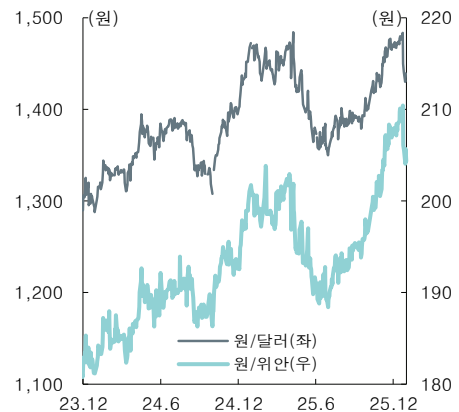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24년말	2,399.5	53,155	304	-1,207
12월말	4,214.2	132,135	408	-489
12월 24일	4,108.6	121,150	364	522
12월 26일	4,129.7	162,736	510	1,781
12월 29일	4,220.6	145,352	502	336
12월 30일	4,214.2	132,135	408	-489
12월 31일	-	-	-	-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24년말	1,472.5	934.1	201.4	1,522.7
12월말	1,439.0	916.1	204.4	1,686.3
12월 24일	1,449.8	929.6	206.1	1,707.8
12월 26일	1,440.3	920.3	205.5	1,695.8
12월 29일	1,429.8	916.1	204.1	1,682.9
12월 30일	1,439.0	919.7	205.7	1,689.9
12월 31일	-	916.1	204.4	1,68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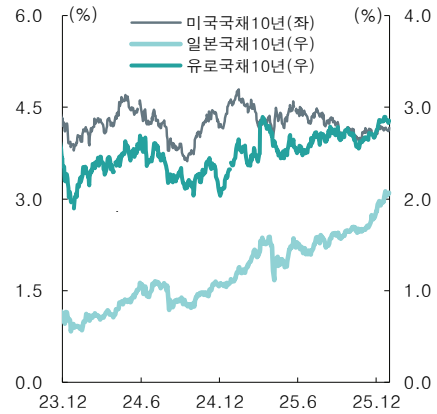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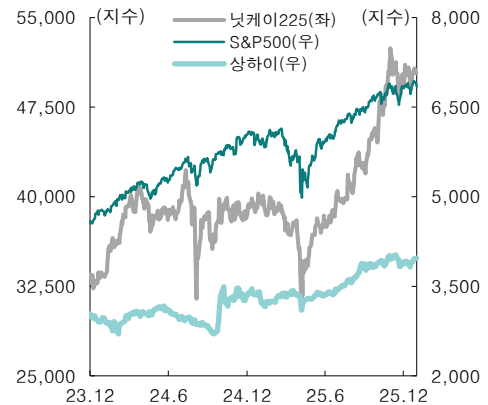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3년말	5.33	5.35	4.25	3.88	0.61	2.02
'24년말	4.33	4.69	4.24	4.57	1.10	2.37
12월말	3.64	4.01	3.47	4.17	2.07	2.86
12월 24일	3.64	4.05	3.50	4.13	2.05	2.86
12월 26일	3.64	4.03	3.48	4.13	2.04	-
12월 29일	3.64	4.02	3.45	4.11	2.05	2.83
12월 30일	3.64	4.02	3.45	4.12	2.07	2.86
12월 31일	-	4.01	3.47	4.17	2.07	2.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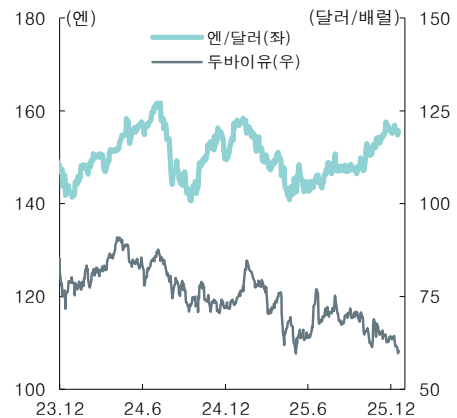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24년말	5,881.6	39,894.5	3,351.8	4,896.0
12월말	6,845.5	50,339.5	3,968.8	5,791.4
12월 24일	6,932.1	50,344.1	3,940.9	5,746.2
12월 26일	6,929.9	50,750.4	3,963.7	-
12월 29일	6,905.7	50,526.9	3,965.3	5,751.7
12월 30일	6,896.2	50,339.5	3,965.1	5,796.2
12월 31일	6,845.5	-	3,968.8	5,791.4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24년말	157.36	1.036	75.9	2,641.0
12월말	156.63	1.175	61.6	4,341.1
12월 24일	155.94	1.178	62.4	4,502.8
12월 26일	156.49	1.177	62.2	4,552.7
12월 29일	156.06	1.177	61.3	4,343.6
12월 30일	156.47	1.174	61.7	4,386.3
12월 31일	156.63	1.175	61.6	4,341.1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1호 신년 특집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6년 1월 2일 인쇄

2026년 1월 5일 발행

발행인 이호성

편집인 안성학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6권 1호 신년 특집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